

부정의 작용역에 대하여

박철우

Abstract

Park, Chulwoo. 2013. 11. On the Scope of Negation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61, 145-17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interrelation among syntactic structure, semantics structure and information structure of negative sentences in Korean. For this, firstly, we definitize the concept of 'scope of negation' in the semantic and syntactic perspective to a syntactic unit which corresponds to a semantic proposition on the whole, on the contrary to the often assumed one that takes for granted that each constituent can be the scope of negation in a negative sentence.

Secondly, we verify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negation against all the syntactic units in negative sentences, from the right categories of negative item ani(an) to the left ones of it. And then we conclude that the scope of negation in Korean negative sentences is within the limit of VP. Meanwhile we describe that V/VP-level adverbials can or cannot be inside of the negative scope, while sentential adverbials including modal adverbs, which are IP-related ones, and IP-level connectives should be outside of the negative scope.

Lastly, we show the role of information structure in triggering focus/presupposition effect and disambiguating in the sentences which have scope ambiguity like quantified ones.

Through these discussions, we can identify separated mechanisms which control syntactic-semantic structures and information structures. This finding offers us a useful cue to analyze multiple readings of negative sentences on the right track.

주제어: 부정(negation), 부정문(negative sentence), 작용역의 중의성(scope ambiguity), 문맥상의 중의성(contextual ambiguity), 문장 부정/문 부정(sentence negation), 성분 부정/구성소 부정(constituent negation),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초점(focus), 전제(presupposition), 함축(implicature)

1. 서론

이 글은 부정과 관련지어 사용되는 범위 혹은 작용역[scope]의 개념

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따라 국어 부정문에서의 부정의 작용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의 부정문으로는 흔히 단형(짧은) 부정이라고 부르는 ‘안 V-’형 부정문(예: ‘철수가 오늘 학교에 안 왔다’)과, 장형(긴) 부정문이라고 부르는 ‘V-지 아니하-’형 부정문(예: ‘철수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다’)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안’ 대신 ‘못’이 쓰인 경우(‘못 V-’, ‘-지 못하-’); 명령형과 청유형에 대해 쓰이는 ‘V-지 말-’형 부정문, ‘이다’문을 부정하는 ‘아니-’ 부정문 등이 있으며, ‘없-’, ‘모르-’ 등의 부정 서술어를 포함한 경우도 부정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단형과 장형의 대표적인 두 부정문 유형의 작용역에 대해 적절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정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정의 작용역 개념이 혼란스러워진 것은 이른바 ‘구성소(성분) 부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가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오해의 발생은 전제에 대한 초점의 작용역이 부정의 작용역으로 혼동에 기인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실제 부정 자체의 작용역은, 부정의 기능이 문장의 명제적 의미의 참 값(truth value)을 모순되는 값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므로, 명제적 의미에 상응하는 통사 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논증하고, 그에 따라 문장을 형성하는 다른 문법범주들이 부정의 작용역 내에 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절에서는 먼저 부정과 관련된 ‘작용역’ 개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3절에서는 부정소와 그 오른쪽 범주들 사이의 작용역 문제를, 4절에서는 부정소와 그 왼쪽 범주들 사이의 작용역 문제를 살펴본 뒤, 5절에서 이러한 부정의 작용역 개념과 정보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글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며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2. 부정과 관련된 ‘작용역’이라는 개념

부정의 작용역 개념이 혼란스럽게 수용되게 된 출발점으로는 다음 (1)을 들 수 있다.

- (1) 나는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ㄱ. 그를 권총으로 쏜 것은 내가 아니다.
 ㄴ. 내가 권총으로 쏜 것은 그가 아니다.
 ㄷ. 내가 그를 쏜 것은 권총으로가 아니다.
 ㄹ. 내가 그에게 권총으로 한 것은 쏘는 것이 아니다.

임흥빈(1973:120-2)은 (1)의 문장에 대해 오직 (1ㄱ-ㄹ)의 네 가지 해석만 가능하다고 보면서, (1)의 각 성분에 ‘강조’가 동반됨에 따라 (1ㄱ)의 경우 ‘나’, (1ㄴ)에서는 ‘그’, (1ㄷ)에서는 ‘권총(으로)’, (1ㄹ)에서는 ‘쏘-’가 부정의 작용역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1)의 예들에 대해 성분 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논의는 결국 이른바 문 부정이라는 것이 성분 부정과 근원적인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음을 현시한다.”라고 하여,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실재하지 않고 어떤 부정문이든 결국 성분 하나만을 부정하게 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¹⁾ 이러한 생각에 따라, 부정소가 문장의 모든 성분들 바깥쪽에 위치하는 하나의 구조로부터 위의 네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보는 기존의 이해는 ‘구조적 모호성을 호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하면서 부정소가 위에서 강조되는 성분 바로 앞에 놓이는 네 가지 구조를 각각 별개로 상정하기에 이른다.

그는 또한 (1)에 상응하는 단형 부정문 ‘내가 그를 권총으로 안 쏘

1) 이후 임흥빈(1987)에서는 서상규(1984)의 논의를 수용하여, 둘 이상의 성분이 부정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반면, 구종남(1990)은 그러한 입장 변화에 반대하며 실제 언어생활에서 그럴 일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왔다'에 대해서는 부정소 '안'이 오직 '쏘-'만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1ㄷ)만 가능하다는 것이다.²⁾ 반면 서정수(2006:963)은 단형 부정문 '철수가 오늘 뒷마당에서 순회와 안 싸웠다'에 대해 '철수', '뒷마당에서' 같은 구성소에 초점이 놓이면 이 문장은 그런 구성소만을 부정하는 구성소 부정(constituent negation)이라고 하면서,³⁾ 이러한 부정이 문장 부정(sentence negation)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서정수(2006)와 같은 직관은 성분이 부정되는 것을 모두 통사구조로 설명하려고 한 임홍빈(1973)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시각일 것이다. '안'이 그보다 앞에 놓인 성분 앞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야 할 테니까 말이다. 여기서는 부정문의 해석 가능성에 대한 직관 문제는 차치하고 성분이 부정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만 주목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성분 부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Klima(1964)에서 시작된 것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 의도와는 떨어진 것이다. 본래 문장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소의 작용역이 문장 전체에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⁴⁾ (1ㄴ, ㄸ)과 같은 국어의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

2) 임홍빈(1973:123)은 각주를 통해, 단형 부정문의 경우에 그 부정 대상이 서술어 외에 양화 부사나 성분 부사(어)를 부정하는 일이 가능하기는 하다고 하면서, 그것은 "'안 먹었다'와 '먹지 않았다'를 동일한 부정으로 혼동하는 그만큼 그것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구종남(1990)도 단형 부정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조가 없으면 동사 부정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3) '구성소', '성분', '구성성분' 등의 용어는 모두 'constituent'의 역어로서 특별한 의미 없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4) Klima(1964)는 문장 부정에 대해 다음 (i)의 기준에 따라 문법적 구문이 도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성식 1990에서 재인용).

(i) ㄱ. 부정 요소 동격 부가(negative appositive tag): Writers will not accept anything, *not even suggestions.*

ㄴ. 'either' 대등 접속(either-conjunction): They stayed away, and we didn't return, *either.*

ㄷ. 'not'를 포함하지 않는 부가의문(tag question without *not*): Writers will never accept suggestions, *will they?*

ㄹ. 'neither' 부가(neither-tag): Writers will not accept suggestions, *and neither will publishers.*

정문은 모두 통사적으로 문장 부정에 해당한다. 문장 부정문에서 개별 구성소가 초점을 받아 그것이 부정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오히려 부정소가 문장 전체를 작용역으로 하여 어느 구성소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되어야 한다. Klima (1964)로부터 시작되어 통사론으로 일반화된 성분 부정의 개념은 부정의 작용역이 부정어를 포함한 구성소에만 미치는 부정 현상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⁵⁾

이상의 개념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부정의 작용역 개념을 이해할 때, (1)과 같은 문장에서 부정의 작용역이 네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해석 방식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부정이라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명제 단위의 문제이므로 한 명제의 전 범위에 걸쳐 적용될 수밖에 없다.

- (2) ㄱ. 'p=에펠탑이 파리에 있다'가 참이다. ≡ '~p=에펠탑이 파리에 있지 않다'가 거짓이다.

국어의 경우, 영어와 같은 통사적 검증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사적인 문장 부정과 성분 부정의 개념을 의미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잦았다(장경기 2001:342-3 참조).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검증 기준으로는 '아무도, 아무 것도, 결코, 전혀, 아직' 등과 같은 부정 극성 성분을 넣어보는 정도가 최선이다.

- 5) Klima(1964)는 'I would force her *not* to marry anyone.'과 같은 예가 'I wouldn't force her to marry anyone.'과 같은 문장 부정의 경우와 구별되는 성분 부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조성식 1990:781에서 재인용).

국어의 경우에는 부정 절이 다른 문장에 내포된 경우가 주로 성분 부정에 해당될 것 같다. 검두사를 사용한 부정 현상도 그것이 통사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성분 부정이 될 수 있겠지만 조어법 차원의 문제라면 어휘적 성분 부정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 (i) ㄱ.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ㄴ. 너 말고 네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ㄷ. 내가 아니라 철수가 그랬어요.
 (ii) ㄱ. 그런 발상은 비과학적이다.
 ㄴ. 그 일은 불가능해요.
 ㄷ. 그것은 무가치한 일이에요.
 ㄹ.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다니!

요컨대 성분 부정은 전체 문장의 궁·부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ㄴ. 'p=에펠탑이 뉴욕에 있다'가 거짓이다. $\equiv$ '¬p=에펠탑이 뉴욕에 있지 않다'가 참이다.

(2)와 같이 부정소는 명제 단위를 작용역으로 하여 그에 대해 참/거짓 값을 교체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1)과 (1ㄱ)을 예로 들어 그 통사구조에 상응하는 의미구조를 상정해 보자.⁶⁾

(3) ㄱ.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

ㄴ. [x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 ∧ ¬[x=나]

ㄷ. ∃x[x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⁷⁾

(1)은 기본적으로 (3ㄱ)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에 초점 강세가 주어짐에 따라 (3ㄴ)과 같은 의미구조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분 부정 개념을 (1)에 적용하는 논자들의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표면 구조를 가진 문장 속의 한 구성소에 강세를 부가하는 것만으로 '¬[x=나]'와 같은 의미구조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보다 (3ㄷ)과 같이 (1)의 부정문은 여전히 명제 단위를 그 작용역으로 하는 (3ㄱ)과 같은 의미구조를 가지지만((3ㄷ)의 후행항), 특정 구성소에 강세를 더함으로 해서 '누군가 그를 권총으로 쏜 사람이 있다'는 전제((3ㄷ)의 선행항)를 불러일으킨다고 보는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⁸⁾ 그러니까 (1)의 통사구조는 (3ㄱ)과 대응하며 그때의 작용역이 그대로 부정소의 작용역이 되되, 특정 구성

6) 이 부분의 논지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는'의 경우 정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가'로 교체하였다. 또한 (6)에서 시제소나 화행소 등의 분석은 고려되지 않았다.

7) 가운데줄로 지운 부분은 음상만이 삭제된 것이므로 해석을 위한 대형식은 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8) (4)의 어떤 해석에서도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은 지적은 박종갑(2001:17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에 강세가 주어지면 그 강세가 화용적인 함축(여기서는 그 구성소를 제외한 다른 후보의 존재에 대한 전제)을 일으키는 초점소로 기능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⁹⁾ 그리고 여기서 초점소를 확장된 의미의 통사론적 요소로 이해한다면 그 초점소가 관여하는 통사구조는 정보구조가 된다.

이상의 논리로, 우리는 부정소의 작용역이라는 것은 그것이 부정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1)에서의 부정의 작용역을 한정하자면 우선적으로는 ‘[내가 그를 총으로 쏘았다]’가 부정의 작용역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 단위가 부정이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인지 반문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이 절의 논의를 통해 하나의 성분이 그 자체로 부정된다는 시각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였지만 그렇다면 어떤 단위가 그 최소한이 될 수 있는지 대해 입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3절과 4절을 통해 어떤 단위가 부정소가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부정소의 오른쪽 범주들의 경우

(1)의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에서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는 모두 부정소에 의해 부정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들은 부정소의 작용역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았-’이나 ‘-다’도 부정소의 작용역 안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부정소와 용언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부정의 작용

9) 강세가 주어진 성분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전제로 만들기 때문에, (17)의 경우, ‘누군가가 그를 총으로 쏘았다’라는 전제를 유발하게 된다. 임홍빈(1987)에서는 이러한 문장에 대해 ‘누군가가 그를 총으로 쏘지 않았다’라는 부정 전제를 유발하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과, 둘 이상의 성분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역 속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에 앞서 먼저 문장 내 부정소의 위치에 대해 검토해 보자.

- (4) ㄱ. 선생님이 꽃병을 안 깨뜨렸다.
 ㄴ. *선생님이 안 꽃병을 깨뜨렸다.
 ㄷ. *안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렸다.
- (5) ㄱ. *송아가 시청에서 전철을 갈아 안 탔다.
 ㄴ. 송아가 시청에서 전철을 안 갈아탔다.
 ㄷ. *송아가 시청에서 안 전철을 갈아탔다.
- (6) ㄱ. ?교실이 조금도 깨끗 안 하다.
 ㄴ. 교실이 조금도 안 깨끗하다.
 ㄷ. *교실이 안 조금도 깨끗하다.
- (7) ㄱ. 민이가 열심히 공부 안 한다.
 ㄴ. ?민이가 열심히 안 공부한다.
 ㄷ. *민이가 안 열심히 공부한다.
- (8) ㄱ. ?철이가 동생과 놀아 안 주었다.
 ㄴ. 철이가 동생과 안 놀아 주었다.
 ㄷ. *철이가 안 동생과 놀아 주었다.
- (9) ㄱ. 순이는 아주 안 착하다.
 ㄴ. *순이는 안 아주 착하다.

우선, (4)는 단형 부정문의 부정소 ‘안’이 서술어 바로 앞에 와야 하며 다른 성분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5)는 ‘안’이 합성어의 어근들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6)은 어근이 분리된 경우인데 어근과 접사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임을 보여주는데, (7)은 어근과 접사로도 볼 수 있지만 서술성 명사와 경동사로도 볼 수 있는 구성에서는 경동사 앞에 놓이는 쪽이 선호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에서와 같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될 때 보조용언 앞에 놓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9)는 서술어를 가장 가까워서 수식할 수 있는 다른 부사들보다 ‘안’이 더 서술어의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예들은 모두 부정소 ‘안’

이 서술어를 수식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여야 함을 보여준다.¹⁰⁾ 그러나 단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안’과 서술어 오른쪽의 요소들과의 결합에 제약이 있지는 않다. ‘안’이 서술어의 오른쪽에 오지 않고 왼쪽에 놓이기 때문이다.

장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서술어의 오른쪽에 오는 요소들과 직접 위치 비교가 가능하다.

- (10) ㄱ.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시지 않는다. ∞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지 않으신다.
 ㄴ.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렸지 않다. ∞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지 않았다.
 ㄷ.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겠지 않다. ∞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지 않겠다.
 ㄹ.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더지 않다. ∞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지 않더라.

(10)은 우선 부정소가 위치하는 문장에서의 선적인 위치를 가늠해 본 것으로, ‘-시-’, ‘-었-’, ‘-겠-’, ‘-더-’ 등의 선어말어미가 서술어와 ‘-지 아니하-’ 사이에 끼어들 수 없고 그보다 오른쪽에만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어말어미가 그러하면 어말어미류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상을 통해, 문장 내에서의 부정소의 선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부정소가 무엇까지를 작용역으로 하여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발화

10) ‘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항상 용언 어간 바로 앞에 놓여야 하고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으며, 접속 요소들을 동시에 부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춤을 추고 노래를 안 불렀다’)(김태수 2002; 박갑용 2005:146-7에서 재인용) 파생접두사로 처리하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는 ‘안 놀아 주다’나 ‘안 먹어 보다’ 등과 같이 보조용언이 결합된 구성에서 ‘안’의 작용역을 ‘놀다’나 ‘먹다’에 한정시킬 수 없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분석은 지나치다고 본다. 다만 이 예를 통해 우리는 부정의 작용역이 보조용언까지 포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을 상징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11) (연속되는 발화에서)

- ㄱ.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지 않으신다(/안 깨뜨리신다). #깨뜨린다.
(의도: 깨뜨리신다고 높여서 말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 ㄴ.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지 않았다(/안 깨뜨렸다). #깨뜨린다.
(의도: 깨뜨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깨뜨리고 있으니까.)
- ㄴ'.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지 않는다(안 깨뜨린다). #깨뜨렸다.
(의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뜨렸다.)
- ㄷ.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지 않겠다(안 깨뜨리겠다). #깨뜨릴 것이다.
(의도: 깨뜨릴 것 같은 정도가 '-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 ㄹ. 선생님이 꽃병을 깨뜨리지 않더라(안 깨뜨리더라). #깨뜨린다.
(의도: 깨뜨리는 것을 과거에 지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각하고 있다.)

(11)은 부정소 '안' 또는 '-지 아니하-'가 각 선어말어미의 의미만을 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선어말어미가 들어 있는 서술어를 부정하고, 해당 선어말어미만을 같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긍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 (11ㄴ')은 (11ㄴ)이 과거와 현재의 대비처럼 되어 '-었-'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선어말어미의 순서를 바꾸어 적용해 본 것이다. '-시-'의 경우, (10ㄱ)만을 고려한다면 '-시-'를 '-지 아니하-'보다 앞쪽에 넣어 사용하는 화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때로 부정의 작용역 내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11ㄱ)까지 참조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¹⁾ 부정소와 선어말어미 사이의 작

11) 때로 부정소가 상위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i) 선생님이 밥을 드시지 않았다. 처먹었다.

그러나 (i)과 같이 객관적 사태의 참 값과 무관하게 표현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부정소의 용법은 언어 단위의 객관적 용법 검증에 활용할 수 없고,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

용역이 이상과 같다면 부정소가 어말어미 경계를 넘을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 따라 서술어의 오른쪽 요소들까지를 고려한 부정의 작용역을 (12)와 같이 표상할 수 있다.

(12) [NP1 ... (안) V](-지 않-)(으)시-었-겠-더-라

이를 실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13)을 들 수 있다.

(13)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아니했다.

즉 (13)에서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가 부정소의 작용역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부정소의 왼쪽 범주들의 경우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부정의 작용역이 미치는 오른쪽 경계가 서술어,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용언 어간(V)까지임은 확인이 되었지만 왼쪽 경계까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들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지만, 부사어나 관형어 같은 수식어들, 접속절의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는 현상이다.

한 심사위원은 (ii)와 같은 예와 같이, 부정소가 ‘았’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ii) 깨지지 않았어. 하지만 곧 깨질 것 같아.

그러나 (ii)의 선행 부정문은 이미 ‘깨지지 않-’을 과거의 일로 단언하고 있다. ‘깨지-’를 전제 한 상태에서 ‘았’만을 부정하는 것은 위의 (i)과 마찬가지로 상위언어적 부정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14) ㄱ. 다행히 [오늘 비가 오]지 않는다(안 온다).
 ㄴ. 아마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안 갔을 것이다).
 ㄷ. 철수는 회사에 갔지만, [영희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안 갔다).

우선, (14)는 문장부사나 대등 접속절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14ㄱ)은, 오늘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다행한 일인 것이지, 오늘 비가 오는 것이 다행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14ㄴ)과 (14ㄷ)도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아마’나 ‘철수가 회사에 갔지만’을 부정의 작용역 속에 넣어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¹²⁾

여기에서 (14ㄱ-ㄷ)이 부정의 작용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부정의 오른쪽 경계와 무관하지 않다. (14ㄱ)의 ‘다행히’가 수식하는 것은 현재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제소 이상의 범위와 관련된다. (14ㄴ)의 ‘아마’는 ‘-을 것이-’와 호응하므로 양태소 범위와 관련된다.¹³⁾ (14ㄷ)의 ‘-지만’이 시제소구 단위를 접속시키고 있으므로, ‘... 갔-’과 관련하여 ‘... 가지 않았-’까지가 접속의 대상이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부정의 왼쪽 작용역이 용언어간(V)을 핵으로 하는 범위(VP) 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그것은 본래부터 동사나 동사구 단위를 수식하는 부사나 접속절(혹은 구)의 경우이다. 이것들은 대체로 중의적인 해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송석중 1981 등).

12) 부사어가 부정의 작용역 밖에 놓이거나 안에 놓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김영근(1984), 서상규(1984-), 접속어의 경우에 대해서는 김문오(1993)에서 구체적인 예들을 더 참조할 수 있다.

13) 김경훈(1996:51-2)은 ‘선어말어미 수식 부사어’와 ‘어말어미 수식 부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들은 범주적으로 선어말어미 수식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 (15) ㄱ. 그녀는 매우 성실하지 않다(?=안 성실하다).
 ㄴ. 순이는 공부하려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안 갔다).
 ㄷ. 철수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안 피웠다).

(15)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공부하려고’, ‘술을 마시고’가 동사구 범위보다 큰 단위를 수식하거나 그런 단위와 접속되는 부사나 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5ㄱ-ㄷ)에서 장형 부정문만을 고려할 때 (15ㄱ)의 ‘매우’는 ‘성실하-’를 수식할 수도 있고 ‘(성실하지) 아니하-’를 수식할 수도 있는 단위이며, (15ㄴ)의 ‘공부하려고’ 또한 ‘(학교에) 가-’를 수식할 수도 있고 ‘(학교에 가지) 아니하-’를 수식할 수도 있는 단위인 것이다. (15ㄷ)의 ‘술을 마시고’도 ‘-고’에 의해 ‘술을 마시-’가 ‘담배를 피우-’와 접속될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와 접속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 내지는 그런 단위와 접속될 수 있는 접속어는 범주적으로는 언제나 중의적인 해석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식어나 접속어에 의한 중의성이 진정한 부정문의 중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다음과 같이 그 수식어나 접속어들이 부정소와 상호작용하면서 작용역의 중의성(scope ambiguity)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¹⁴⁾

- (16) ㄱ. ~[매우(성실하(그녀))]
 ㄴ. 매우(~[성실하(그녀)])
 (17) ㄱ. ~[공부하려고(순이)(학교에_가(순이))]
 ㄴ. (공부하려고(순이))(~[학교에_가(순이)])
 (18) ㄱ. ~[술을_마시(철수)∧담배를_피우(철수)]
 ㄴ. 술을_마시(철수)∧~[담배를_피우(철수)]

14) 형식화는 부정소(~)와 부사어/접속어 사이의 작용역 차이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제소와 화행소는 생략하였다.

이러한 중의성은 서두에서 (1)과 같은 예를 통해 제시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1)의 경우에 대해서도 중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맥상의 중의성(contextual ambiguity)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의성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 이유를 전적으로 범주적 제약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고, 의미적 결합 제약에서도 찾을 수 있다. (15ㄱ)이 중의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실하다’나 ‘성실하지 않다’나 모두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형용사적 성질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매우’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15ㄴ)도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니까 공부하려고 학교에 갈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자꾸 어울리니까 공부하려고 학교에 가지 않는 것도 가능하므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의미상 결격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어울림의 문제는 (15ㄷ)도 마찬가지여서 술을 마시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고,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의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후자의 해석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화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여도 의미상의 조화를 고려한 판단일 것이며, 그런 화자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를 ‘성실하고’, ‘공부만 하고’로 대체한다면 오히려 전자와 같이 먼저 접속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적용하는 해석이 더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15ㄱ)과 (15ㄴ)에 대해서도 그런 어울리지 않는 피수식어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5ㄱ)에서 ‘성실하-’ 대신 덜 중립적인 형용사 ‘악랄하다’나 ‘악착같다’ 같은 것을 넣어본다면, ‘악랄하지 않다’나 ‘악착같지 않다’를 ‘매우’로 수식하는 것이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5ㄴ)의 경우에도 ‘공부하려고’를 ‘교실 청소를 하려고’로 바꿔 넣어 본다면 의미상 부정 이전에 수식을 먼저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5)와 관련하여 다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은,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이 그 작용역에서 동일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즉 (15ㄱ-ㄷ)에서 장형 부정의 경우는 부사어나 접속절이 본 서술어와 ‘아니하-’를 각각 수식하거나 그 각각과 접속함으로써 작용역의 중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단형 부정의 경우에는 그러한 통사적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관상 (19-21)의 ㄴ 예들과 같은 해석은 (19-21)의 ㄷ 예들에 비해, 훨씬 부정의 작용역 속에 포함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 (19) ㄱ. 그녀는 [[e 매우 성실하]지 않]다
 ㄴ. 그녀는 매우 [[e 성실하]지 않]다
 ㄷ. 그녀는 매우 [e 안 성실하]다
 ㄹ. 그녀는 [e 매우 안 성실하다]

- (20) ㄱ. 순이는 [[e 공부하려고 e 학교에 가]지 않]았다
 ㄴ. 순이는 e 공부하려고 [[e 학교에 가]지 않]았다
 ㄷ. 순이는 e 공부하려고 [e 학교에 안 가]았다
 ㄹ. 순이는 [e 공부하려고 e 학교에 안 가]았다

- (21) ㄱ. [[철수가 술을 마시-고 e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ㄴ. 철수가 술을 마시-고 [[e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ㄷ. 철수가 e 술을 마시-고 [e 담배를 안 피우]었다
 ㄹ. 철수가 [e 술을 마시-고 e 담배를 안 피우]었다¹⁵⁾¹⁶⁾

그렇지만 (19-21)의 ㄹ 예들과 같은 구조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들이 적지 않다.

15) (19-21)는 부사어나 접속어가 부정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만을 개략적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예들만을 통해서도 중의적 구조가 허용되는 양상은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다. 생략된 논항(e)을 따로 표시한 것은 부정의 작용역이 명제 단위에 미치므로 필수 논항을 배제할 수는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16) (21)의 접속어 ‘-고’는 대등 접속의 ‘고’라기보다는 종속 접속의 ‘-고(서)’로 볼 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 (22) ㄱ. 학생들이 다 안 오고, 일부만 왔다.
 ㄴ. 남편이 갑자기 안 오고, 미리 연락하고 왔다.

(22)는 그러한 해석이 실제 발화에서 어렵지 않게 생산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 예들의 중의성을 해소할 형식적 수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예들은 끊어 읽어야 할 경계와, 억양구 형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권재일 외 1997).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차이는 역시 부정소의 작용역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제/초점과 같은 정보구조 묶이다. 결국 단형 부정문의 작용역 중의성은 그것이 실재한다고 할 때 통사론적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안’이 서술어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식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작용역은 장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과 그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그것과 접속하는 접속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형어 또한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관형어는 서술어의 필수 성분과 마찬가지로 부정소의 작용역을 벗어난 해석을 상정할 수 없다.

- (23) ㄱ. [[잘생긴 경찰관이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ㄴ. [잘생긴 경찰관이 그녀를 안 쳐다보]았다
 (24) ㄱ. [[경찰관이 예쁜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ㄴ. [경찰관이 예쁜 그녀를 안 쳐다보]았다

(23)과 (24)에서 ‘잘생긴’이나 ‘예쁜’이 강조를 받아 나머지 부분을 전제로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관형어들이 부정소의 작용역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이것들이 강조를 받지 않고 전제가 된다고 해도 부정소의 작용역과 무관한 해석을 받을 수는 없다.

요컨대, 이 절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부정의 작용역이 명제 단위

에 미친다는 것을 통사적으로 구체화하여 용언 어간(V)에 의해 선택되거나 그것을 수식하는 범위까지로 한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문장부사나 대등접속절 가운데 VP 단위를 넘는 것들은 배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VP보다 작은 단위를 수식하는 부사어는 장형 부정의 경우 작용역이 다른 두 구조(V를 수식함으로써 부정의 작용역 내에 있는 경우와 ‘아니하-’를 수식함으로써 부정의 작용역 밖에 있는 경우)를 가질 수 있음으로 인해 중의성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단형 부정문에 대해서도 운율적 요소가 허락되면 그러한 부사어들이 부정의 작용역 안쪽으로 들어간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았다. 앞서 (12)에서 정리하였던 부정의 작용역에 이 절의 논의를 추가하면 (25)와 같이 표상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 (25) S_ADV IP_CONJ [V/VP_CONJ NP1 V/VP_ADV ... V](-지 않-)(으)
 시-었-겠-더-라
 (S_ADV: 문장 부사어, IP_CONJ: IP 층위의 접속절, V/VP_ADV: 성분 부사어와 부사절)

(25)에서 작용역 바깥의 요소들과 작용역 안쪽의 요소들 사이의 어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필수 논항은 NP1만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지만 모두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다.

필수 논항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일 점은, 필수 논항은 장형 부정문에서, 부사어라도 중의성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26) 철수가 꽃을 영희에게 주지 않았다.

17) 임흥빈(1998:592)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i) 부정의 작용역과 동절 성분 조건

부정의 작용역은 기본적으로 동절 성분에 국한된다. 하위절 성분도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된다. 하위절 자체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상위절 성분이 하위절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일은 없다.

(26)에서 필수 부사어 ‘영희에게’는 항상 ‘주지’와 먼저 결합하여 그것을 수식할 뿐, ‘주지 않았다’를 수식하기는 어렵다.

5. 부정의 작용역과 정보구조 영역의 구별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부정과 관련된 작용역 개념을 명확히 한정하고 실제 부정의 작용역을 통사범주와의 대응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지금까지 국어 부정문의 다중적 해석을 다루는 과정에서 혼동되어 왔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국어의 부정 현상을 직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그 다중적 해석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해도 그러한 해석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다시 (1)의 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27)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27)의 예들에 대해, ‘아니(안)’를 문장 부정소로 볼 때, 그 부정소의 작용역이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고,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만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정의 작용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점/전제 등 정보구조적 현상이 부정문에 추가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초점의 효과에 대해서도 (3)의 예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왜 많은 부정의 논의에서 부정의 작용역을 좁게 한정하려고 하는 것일까?¹⁸⁾

18) Kuno(1980, 1983)은 동사-문말 언어의 ‘부정소의 작용역(negator scope)’에 대해 ‘그것을 선행하는 동사어(verbal)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였고, 다만 다중선택의 초점

그 까닭은 아마도, 부정문의 구조를 논의할 때 발화 상황과 독립적인 추상적인 문장 단위에서 고려한다고 여기면서도, 문장 의미에 대한 직관적 판단은 발화 상황에서 발화된 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발화인 부정문들 가운데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쉽게 상정되지 않고, 실증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도 잘 쓰이지 않는 데 반해, 하나의 성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러한 해석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문맥을 고려하면, ‘무슨 일이야?’와 같은 질문 문맥을 상정할 때,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어.’와 같은 긍정문은 그 전체가 새로운 정보로서 제공될 법하지만,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어.’와 같이 부정문으로 대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부정문은 그렇게 전체가 새로운 정보가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돌이를 총으로 쏘았는데, 네가 개를 권총으로 쏘았나?’라는 질문이 문맥으로 제공된다면 ‘내가 개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어.’와 같이 대답하게 되듯이, 일정한 문맥이 먼저 주어지고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해 부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훨씬 자주 사용될 것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발화 차원의 판단이 문장의 통사구조와 의미구조에 대한 직관으로 작용하는 것은 언어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부정문의 통사구조와 의미구조에서 부정의 작용역은 우리가 앞의 (25)를 통해 제시한 것과 그것의 의미구조 사이에서 일관되게 포착되어야 하는 반면, 부정문도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초점/전제 등의 정보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 언어 단위이므로 정보

(multiple-choice focus)는 그 작용역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Yatabe 1996에서 재인용), 앞서 비판했듯이 국어 분석에서도 그러한 시각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9) 구종남(1990)은 이와 유사하지만 더욱 특화된 문맥을 예로 들어, 하나 이상의 성분이 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우리가 견지하듯이 추상적인 통사의미구조의 설명을 위해 실제 발화문의 사용 가능성을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충위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그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라는 기제를 통해 초점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27)은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맥락에 따라 상당히 많은 해석 가능성을 가진다. 그런데 부정문에서는 부정소가 초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긍정 대당 명제에 대한 지식이 이미 화자와 청자 사이에 맥락으로 존재할 때, 그것을 전제하면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새 정보를 전달하려면 부정소가 초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28) [전제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초점 않았다]

(28)은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니?’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고,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가 다시 초점 강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이것들은 일반적인 초점 보다 더 두드러진 강세를 가짐으로써 그것과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존재들의 집합을 다시 전제하면서 그 집합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대조성이 부각된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29)와 같이 표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9) ㄱ.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초점 않았다]
 ㄴ. [전제 내가 [초점 그를] 권총으로 쏘지][초점 않았다]
 ㄷ. [전제 내가 그를 [초점 권총으로] 쏘지][초점 않았다]
 ㄹ. [전제 내가 그를 권총으로 [초점 쏘지]][초점 않았다]

그러면 이 초점들은 전제 속에서 다시 상대적인 초점이 되는데, 이에 상대되는 전체 초점인 부정소는 그러한 전체 속의 초점화가 만들어진 함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 가운데 다시 (29ㄱ)을 예로 들어 그러한 정보구조가 적용된 의미구조를 표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30) ㄱ. $[\exists x[x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 \wedge [내가 크를 권총으로 쏘았-]]$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

ㄴ. ∃x[x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

(30ㄱ)은 (29ㄱ)에서 전제 속에 초점으로 주어진 ‘내가’로 인해 그 전제 속의 나머지 부분이 대조적으로 전제됨을 보여주고, 그때의 전제된 ‘누군가가 그를 권총으로 쏜 것’이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쏜 것으로 새로이 제시된 것이라는 단언이 부가된 것도 그 전체 전제의 일부가 됨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담화 전제가 전부 사실이 아님을 부정소를 통해 새로이 단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체 의미 표상에서 부정의 작용역은 가장 오른쪽의 식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식만이 (29ㄱ)의 통사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구조이며 선행하는 두 개의 식은 모두 정보구조에 의해 함축된 전제들이다. (30ㄴ)은, (30ㄱ)의 의미 표상이 해석상으로는 결국 (30ㄴ)과 같은 결과가 됨을 보여준 것이다. 이 식은 (3ㄴ)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정보구조의 전체적인 체계와 단형 부정문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마지막으로 부정의 작용역과 관련하여 빈번히 논의되는 양화 부사를 포함한 예에 대해서 정보구조와의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31) 학생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

우리는 위에서 (31)과 같은 문장의 중의성은 작용역의 중의성 때문이고 그것은 ‘모두’가 ‘오-’를 먼저 수식하느냐, ‘(오지) 아니하-’를 수식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31)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다.

- (32) $\neg, \forall x \sim [\text{학생}(x) \rightarrow \text{오}(x)]$
 $\perp, \sim \forall x [\text{학생}(x) \rightarrow \text{오}(x)]$

(32)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은 ‘모두’가 ‘오-’를 수식하거나 ‘아니하-’를 수식하는 것이 다 가능한 V/VP 수식 부사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보구조가 이 둘 중 한 가지 해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 (33) $\neg, [\text{전제 } \text{학생들이 모두}][\text{초점 } \text{오지 않았다}]$
 $\perp, [\text{전제 } \text{학생들이 모두 오지}][\text{초점 } \text{않았다}]$
 $\perp, [\text{전제 } \text{학생들이}][\text{초점 } \text{모두 오지 않았다}]$
- (34) $\neg, \forall x \exists P[\text{학생}(x) \wedge P(x)] \wedge \sim [\text{학생}(x) \Rightarrow \text{오}(x)]^{20)}$
 $\perp, \forall x \exists P[\text{학생}(x) \rightarrow \text{오}(x)] \wedge \sim \forall x \exists P[\text{학생}(x) \Rightarrow \text{오}(x)]$
 $\perp, \exists x \exists P[\text{학생}(x) \wedge P(x)] \wedge \forall x \sim [\text{학생}(x) \Rightarrow \text{오}(x)]$
 $\perp', \exists x \exists P[\text{학생}(x) \wedge P(x)] \wedge \sim \forall x [\text{학생}(x) \Rightarrow \text{오}(x)]$
 (‘P’는 서술어 변항)

예컨대 (31)이 (33 $\neg$)과 같은 정보구조를 가진다면 그것은 ‘학생들이 모두 어떻게 했니?’라는 질문 문맥을 상정하여 그에 대한 답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때의 해석은 양화사 ‘모두’가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전부 안 와서 온 사람이 없다’의 의미가 될 것인데 그 이유는 (33 $\neg$)의 정보구조가 (34 $\neg$)과 같이 함축을 포함한 의미구조를 추가적으로 유발하게 되어 ‘모든 학생’은 전제되고 초점 속에 있는 서술어 ‘오-’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²¹⁾ 반

20) 발화 상황을 포함하는 담화 표상이기 때문에 양화사는 비선택적으로 작용역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21) (34)에 제시된 의미 표상은 선행항의 전제와 후행항의 단언을 결합시킨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담화 표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며 이 글에서는 정보구조에 의해 전제와 초점이 발생하는 것을 정보구조에 의한 함축적 의미로 보고 있다. 한 심사위원께서는 (33 $\perp, \perp'$)에 대해서는 어떤 함축이 발생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명제

면 (31)이 (33ㄴ)과 같은 정보구조를 가졌다면, 모든 학생들이 온 사실이 담화상에서 전제되지만 그것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단언하는 해석이 산출되어야 하므로,²²⁾ (34ㄴ)과 같은 부정이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화자가 (33ㄷ)과 같은 정보구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떤 학생들이 있고 그들이 뭔가를 했다는 것만 전제하기 때문에,²³⁾ 정보구조가 양화사의 작용역과 부정의 작용역 사이의 순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즉 (34ㄷ)과 (34ㄷ') 가운데 어떠한 해석이 나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므로 (33ㄷ)은 그 발화 상황에서 유용한 정보구조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²⁴⁾

이상과 같이 부정의 작용역은 그 자체의 통사구조와 어휘적 특성에 의해 작용역의 중의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정보구조는 문맥 속에서 이러한 의미적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²⁵⁾

따라서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부정소의 작용역을 엄밀히 의미론적 시각에서 한정하고, 정보구조에 의한 설명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구조를 발화 문맥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의 문제로서 별도로 체계화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 의미 이외에 전제가 발생한 것 자체를 함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22) 이때는 전칭 양화사가 부정의 작용역 속에 포함되는데 담화 전제 전체가 부정됨으로 해서 양화사가 존재적으로 전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23) (34ㄷ, ㄷ')의 선행항에서는 학생들이 존재적으로 전제됨을 제시하고, 후행항에서는 그렇게 담화상에 도입된 학생들에 대한 전칭 양화가 이루어짐을 보인 것이어서 선행항과 후행항 사이에서는 존재들의 담화 영역의 크기가 달라졌다. 선행항은 전제된 부분이고 후행항은 단언된 부분이므로 그 사이에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작하여 식을 그와 같이 제시한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 24) 한 심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33ㄴ)과 (33ㄷ)의 문맥을 상정해 보자면, (33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모두 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문맥에 의한 전제는 담화 전체로서 의미론적 존재 전제와는 구별되며 발화 상황에서 직전 발화에 의해 화자와 청자의 단기기억 속에 공유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3ㄷ)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했니?'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33ㄷ)에서는 '학생들'만 전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초점에 해당하는 신정보를 제공한다.
- 25) (33)과 (34)가 (31)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구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양화사와 부정의 작용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이다.

6. 결론

이 글에서 우리는 국어 부정문에서 부정의 작용역이라는 개념에 대한 혼동된 시각을 지적하고 그것은 부정의 의미론적 본질에 충실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통사 단위로 한정되어야 마땅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러한 명제 단위에 해당하는 국어 부정문의 통사적 단위가 정확히 어떠한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어 장형과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소를 중심으로 하여 오른 쪽에 놓일 수 있는 언어 단위들과 그 왼쪽에 있는 언어 단위들의 어순적 위치와 부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국어 부정소의 작용역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그것의 최대 확장인 VP 범위가 되어야 함을 보일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의 작용역에 대한 한정이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부정의 작용역 개념이 정보구조적 시각과 혼합되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부정의 작용역과 정보구조적 요소들, 즉 초점(전제)의 범위 사이의 개념적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존에 부정의 작용역으로 이해되던 현상이 정보구조적 시각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 두 기제가 혼동될 수 있는 양화사를 포함한 구성의 예를 통하여 두 기제 사이의 상관성과 분리성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 글에서 부정문의 다중적 의미를 이해하는 여러 시각의 공존 속에서, 의미·통사구조와 정보구조적 기제를 분리하여 이해해야 하며, 진정한 중의성과 화용적 함축(전제)의 다변성을 구별하는 것이 현상을 이해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보였다고 믿는다. 국어 정보구조의 기본 단위와 그 기제를 통한 발화문의 다변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문제는 이 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므로,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구종남. 1990. “부정문의 통사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제28집. 403-423
- 구종남. 1991. “부정의 영역과 언어 내적 논리 --단형 부정문의 중의적 해석과 관련하여--.”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06. 171-191
- 권재일 외 4명. 1997. “통사 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성 연구.” 『언어학』 (한국언어학회) 제20호. 59-112
- 김경훈. 1996. “현대 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식. 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아출판사. 452-466
- 김문오. 1993. “문말에 부정소를 가진 접속문의 중의성 고찰.” 『문학과 언어』 (문학과언어학회) 제14집. 43-66
- 김영근. 1984. “한국어 부정의 속박범위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갑용. 2005. “한국어 부정문의 구조.” 『부정과 부정어』 (김영화 외). 서울: 한국문화사. 119-161
- 박종갑. 2001ㄱ. “국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하여(1).”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제38집. 163-183
- 박종갑. 2001ㄴ. “국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하여(2) --중의적 의미 해석과 관련된 인식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제74집. 1-20
- 박철우. 1998.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상규. 1984ㄱ.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 (한글학회) 제186호. 73-114
- 서상규. 1984ㄴ. “국어 부정문의 의미 해석원리.” 『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제9집. 41-79
- 서정수. 2006. 『국어문법』. 서울: 한세본.
- 송석중. 1977. “부정의 양상의 부정적 양상.” 『국어학』 (국어학회) 제5집. 45-100
- 송석중. 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 (한글학회) 173-174 어우름.

327-352

- 신선경. 1995. “부정 해석과 부정소 상승에 관하여.” 『한일어학논총: 남학 이종철 선생 화갑기념논총』. 서울: 국학자료원. 149~170.
- 이기용. 1979.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 『국어학』 (국어학회) 8. 59-94
- 임홍빈. 1973. “부정의 양상.” 『논문집』 5.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15-140
- 임홍빈. 1978. “부정법 논의와 국어의 현실.” 『국어학』 6. 185-206
- 임홍빈. 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 생활』 (국어연구소) 10. 72-99
- 임홍빈. 1998. “부정법.” 『문법 연구와 자료: 이익섭 선생 회갑기념논총』. 서울: 태학사. 551-620
- 장경기. 2010. 『현대 생성문법과 영어와 국어의 부정법 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 조성식 편. 1990. 『영어학 사전』. 서울: 신아사.
- 조준학. 1975. The Scope of Negation in Korean, *The Korean Language and Social Projection*(손호민 편). Hawaii University. 63-80
- 최기용. 1993. “한국어 장형 부정문의 구조.” 『생성문법연구』 (생성문법연구회) 3.1. 25-78
- 한나래. 1997. 한국어 성분부정과 초점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achusettes. The MIT Press.
- Yatabe, Shuichi. 1996. Negation and focusing in the grammar of Japanese, in Takao Gunji, ed., *Studies on the Universality of Constraint-Based Phrase Structure Grammar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Research Program, Joint Research, Project No.06044133,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Japan). Osaka University. 217-225.

박철우(Park, Chulwoo)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전화: 031-467-0862

전송: 031-467-0909

전자우편: cwpa@anyang.ac.kr

원고접수일: 2013. 09. 15

심사완료일: 2013. 10. 21

게재결정일: 2013. 11. 01